



발행인 김승택 원장직무대행  
편집인 김유빈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3  
FAX 044-287-6089

발행일 2022년 8월 16일

# 2022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3(jwkim@kli.re.kr)

2022년 상반기는 지난해 2분기부터 시작된 고용회복세가 이어진 시기였다.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94만 1천 명 증가했고 고용률 증가, 실업률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까지 고용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고 하겠으나, 기저효과가 반대로 돌아선 2분기 이후에도 견조한 고용회복세가 이어졌다는 점은 가치 고무적이다. 취업자 수가 증가로 돌아선 2021년 3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올해 6월까지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월대비 계절조정계열로도 올해 3월과 6월을 제외하고는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6월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고용충격 발생 이전 고점인 2020년 2월을 넘어 고점 대비 102.4% 수준이다.

## I. 2022년 상반기 노동시장 개관

2022년 상반기는 고용양적인 측면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용회복세가 이어진 시기였다. 전년동기대비 취업자가 94만 1천 명 증가했고, 그 외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고용지표의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났다. 기저효과로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고용호조가 2분기까지도 이어지면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건설업 취업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고용지표 호조의 지속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비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서비스업 고용이 회복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비대면서비스업 고용과 금리 및 물가 인상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은 하반기 국내고용의 향방을 점칠 때 우려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II. 2022년 상반기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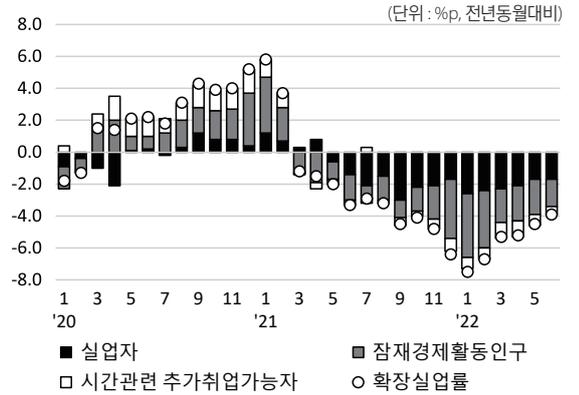
### 1.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코로나19 이전 수치 회복

2022년 상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면서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이였다. 실업부터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실업자 수는 93만 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1만 9천 명 감소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2020년을 제외하면, 상반기 기준으로 2013년 이후 매해 증가해왔는데, 2022년에는 실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6월 실업률도 3.0%로 6월 기준으로는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어 수치상으로 실업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상반기 실업 상황은 확장실업률을 통해 살펴봐도 완전한 회복세가 관찰된다. 2022년 상반기 확장실업률은 큰 폭의 감소를 이어가고 있는데, 실업자와 더불어 잠재경제활동인구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 능자 역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장실업률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15~29세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진다(그림 2 참조).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6월 기준 19.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예년에 비해 매우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경계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으로 빠르게 유입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일상로의 복귀는 실업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도 이어졌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그림 2] 15~29세 확장실업률과 각 구성 요인의 변동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상반기 41만 3천 명 감소하여 2021년 하반기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사유별로 ‘쉬었음’과 ‘취업준비’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세에 있으며, ‘육아·가사’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도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을 멈췄던 인구가 활발하게 노동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2022년 상반기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역시 2022년 상반기에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크게 증가했던 수요측면 구직단념자가 2019년 2분기 수준으로 감소했고 공급측면 원인으로 구직을 포기한 인구는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회복세

고용상황을 연령별로 판단해 보면, 청년층(15~29세)과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도 꾸준히 관찰됐다. 50대는 2021년 상반기와 다르게 큰 폭으로 취업자가 증가했고, 60세 이상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영향하에서도 꾸준히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30, 40대의 고용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취업자 증감 수치만으로 판단하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회복세가 분명하다고 말하기

실업은 수치상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남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을 멈췄던 인구가 활발하게 노동시장으로 재유입

청년층과 50대, 60대 위주의 고용 증가

힘들다. 다만, 두 연령대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취업자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는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므로, 30, 40대 고용상황이 취업자 증감 수치에서 나타나는 것만큼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청년층 고용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20대 초반(20~24세) 인구는 감소하고 20대 후반(25~29세) 인구는 증가 중이므로 취업자 증가 규모도 20대 후반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는 20대 초반에서 6만 9천 명, 20대 후반에서 12만 4천 명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인구변화를 감안한 고용률은 상반기 각각 3.8%p, 3.9%p 증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대 초반의 경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주로 여성·전문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간호 관련 인력 고용의 증가로 풀이된다. 20대 후반의 경우에는 주로 비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가 나타났으며, 증가 규모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순으로 컸다. 도소매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용직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30대와 40대 모두 초반 연령대는 인구가 증가하고 후반 연령대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부연령별로 분리하여 취업자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0대 초반(30~34세)에서는 상용직, 보건복지서비스업, 전문가 위주의 취업자 증가가 나타났고, 30대 후반(35~39세)에서는 고용 비중이 높은 도소매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져 관련 직종인 판매종사자, 기능원의 감소가 컸다. 40대 역시 인구감소가 나타나는 40대 후반(45~49세) 취업자 감소폭이 크다. 도소매·자영업자 감소가 특징적이다. 반면 40대 초반(40~44세)에서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대면서비스업 임금근로자가 늘고 있어, 비슷한 산업군 내에서도 세부연령별로 취업자 증감 현황이 달리 나타났다.

50대는 성별로 종사 산업의 분포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영향도 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바 있다. 2021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는 대면서비스업의 고용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50대 여성의 취업자, 고용률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2021년 하반기부터 50대 여성 고용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부진했던 대면서비스업보다는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 중이다. 50대 남성 취업자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르게 증가하였는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증가폭이 이례적이다. 고용변동이 적은 연구개발업보다는 해당 연령·성별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과 관련된 전문서비스업,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일 확률이 높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영향하에서도 고용률 및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출은 여전히 활발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직접일자리사업 관련 고용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분 중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임시직 종사자 비중은 크게 줄었다. 반면 민간부문에 의한 고령층 고용 증가분은 늘었다. 고령층 남성의 경우 감시단속 근로와 관계된 사업시

상대적으로 부진한  
30, 40대 고용

〈표 1〉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p,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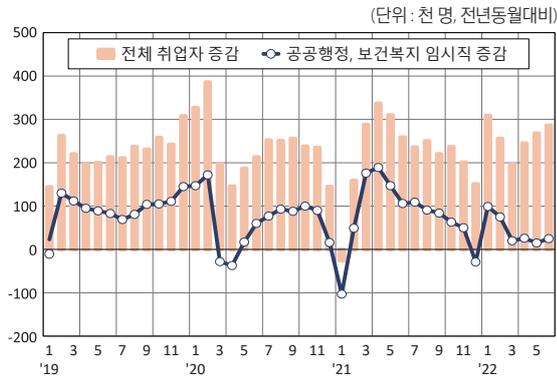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15~29세	인구	-153	-184	-206
	취업자	205	254	162
	고용률	3.1	3.9	3
	실업률	-2.6	-3.2	-2.2
30대	인구	-131	-135	-130
	취업자	-35	27	19
	고용률	1	1.9	1.7
	실업률	-1	-1.5	-0.2
40대	인구	-65	-74	-71
	취업자	2	27	18
	고용률	0.6	1	0.9
	실업률	-0.4	-0.5	-0.5
50대	인구	17	26	44
	취업자	163	259	230
	고용률	1.7	2.8	2.3
	실업률	-0.7	-1.5	-1
60대 이상	인구	626	590	557
	취업자	324	435	451
	고용률	0.4	1.6	2.2
	실업률	0	-1.4	-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건설 및 제조와 관련된  
50대 남성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 중인 상용직

[그림 3] 65세 이상 취업자 증감 및 공공행정·보건복지 서비스업 임시직 종사자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영향이  
줄어 들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증가 양상

설 및 지원, 임대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창고 등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돌봄 및 보건 관련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3. 상용직, 임시직 위주의 고용회복

2분기 들어 추축한  
임시직 회복세

2022년 상반기 상용직은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상용직이 83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의 증가폭을 뛰어넘었다. 상용직은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회복이 비교적 부진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도 상용직은 증가했다. 물론 증가 규모를 비교하면 제조업과 건설업, 사회서비스업, 비대면서비스업의 상용직 증가가 더 두드러진다. 특히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비교적 근로조건이 양호하다고 알려진 산업에서의 상용직 증가폭이 큰 것도 고무적이다. 상용직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영향으로 고용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줄었던 것이지, 고용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절조정계열로 보아도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의 고용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고용 호조를 보이고 있다.

임시직은 2022년 1분기까지 기존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2분기에 회복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 2022년 1분기 30만 명가량 증가했던 임시직은 2분기 2만 5천 명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임시직 증가폭이 약 10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줄었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숙박음식점업 임시직도 증가

폭도 7만 명에서 1만 명가량으로 축소됐다. 도소매 임시직은 감소폭이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일자리사업 영향 축소와 비대면서비스업 회복세 둔화가 임시직 고용회복세의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계절조정계열로 볼 때 임시직 고용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019년 이후로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감소와 자영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 양상이 지속되었으나 2022년 상반기에는 고용주가 증가 전환되면서 자영업자 고용상황이 일부 변화하였다. 특히 2분기 고용주 증가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6월에는 10만 명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정 산업에 집중된 고용주 증가는 아니었고 숙박음식점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고용주가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장기로 봤을 때, 고용주는 증가와 감소를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주가 증가하는 반등 시기가 크게 늦춰진 점

[그림 4] 코로나19 확산 이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계절조정계열)



주: 2020년 2월=100.

자료: 통계청, KOSIS.

증가 전환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을 감안했을 때, 2분기에 나타난 고용주 증가세의 신호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

자영자 고용은 장기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경기 하강기에 호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기존에는 이를 노동시장 내에서 자영자가 거시경제 변화로 인한 고용 충격의 완충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경기회복에 따라 늘어났던 자영자 고용은 2분기에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농림어업, 운수창고업을 중심으로 자영자가 늘고 있는 있으나 증가 규모는 1분기에 비해 축소되고 있으며, 기타개인서비스업 자영자가 여전히 크게 줄고 있다.

#### 4. 제조업 고용 증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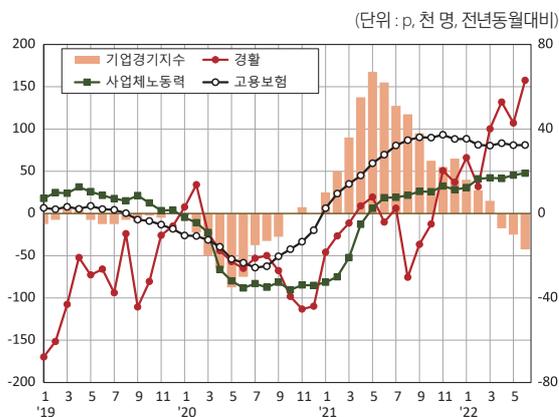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제조업 고용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1분기에는 수출 호조, 2분기에는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상반기 경기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비교적 유리한 경기 상황에서 제조업 취업자는 2022년 상반기에 최근 몇 년간의 고용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림 5]를 보면, 2월과 5월을 제외하고는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계절조정)는 전월대비 증가를 이어갔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황)상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경황 제조업 취업자는 상반기에 9만 9천 명 증가했는데, 2분기 들어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제조업 고용 증가세는 경황 외 고용보험 피보험자,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상반기 제조업 세부 업종별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먼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의 고용 상황이 좋았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이 큰 폭의 증가를 이어간 영향으로 고용도 계속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회복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공작 및 건설 기계 수출이 증가하면서 기계장비 고용도 증가를 지속했다. 지난해부터 고용이 꾸준히 증가해 온 전기장

[그림 5] 제조업 계절조정계열 취업자 수



[그림 6] 제조업 기업경기지수 증감 및 고용지표 증감 추이



비 제조업도 올해 상반기에 고용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생산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이슈, 전기차 생산 및 수요 확대 등으로 이차전지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자부품, 반도체, 기계장비 등 전방산업에서의 부품 수요 증가로 인해 금속가공 제조업 고용 역시 상반기에 증가세를 유지했다. 제조업에서도 고용 비중이 큰 이 업종들은 하반기 업황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없다면 현재의 고용 증가세가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반기 중 제조업 고용에서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및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제조업 고용 증가가 특징적이다. 오미크론 확산이 심화된 시기에는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진단키트 수요가 폭증했다. 이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는 시기에

**제조업 고용은 경황 취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사업체 종사자 수에서 모두 증가세**

**전자부품, 기계장비, 금속가공, 전기장비 제조업 고용 증가세 지속**

국내외 수요 증가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 고용 증가

들어서도 바이오 의약품, 기존 의료기기 등 수출이 호조였다. 내수 및 국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의료용 물질 및 의료·정밀 기기 제조업 고용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한편 상반기는 자동차 제조업에 대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다. 부품 수급난, 우크라이나 사태에 6월에는 화물연대 운송거부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수출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상반기 자동차 제조업 고용은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고용 감소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이른 측면이 있다. 하반기 경기와 특히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들의 해소 여부에 따라 고용 상황도 다시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건설업 고용 증가세 지속

건설업 취업자는 2022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6만 6천 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상반기 내내 전년동월대비 3만 명 이상씩 증가했고, 사업체 종사자 수도 2월 증가로 전환된 이후 6월까지 증가를 이어갔다. 건설 경기를 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증가했지만(1분기 9.1% 증가, 4~5월 평균 13.3% 증가), 건설투자는 부진한 실정이다(건설기성액 1분기 1.5% 감소, 5월 들어 증가 전환).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상승 등 하반기 건설경기를 제약하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2021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온 건설업 고용은 하반기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얼마나 잘 관리되는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운수창고업 취업자 증가

하반기 건설 경기 리스크 관리에 따라 건설업 고용 증가세 유지 여부 결정 될 것

6. 대면서비스업의 고용둔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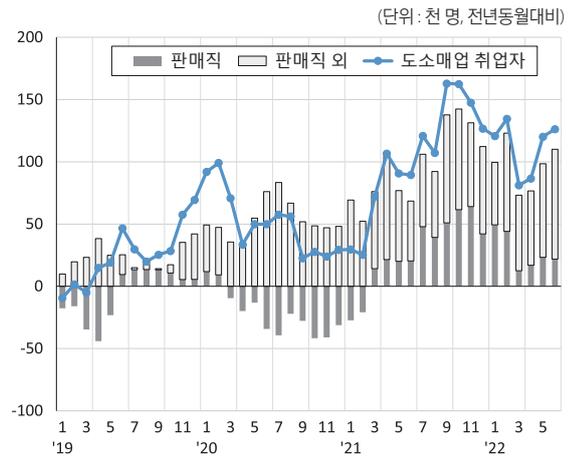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서비스업 취업자는 1,953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9.5만 명 증가하였다. 코로나19가 초기에 확산되었던 2020년 상반기에 취업자가 10만 명 감소하고 2021년 상반기에는 3만 명 증가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취업자 감소가 비교

적 적게 나타난 업종에서 취업자가 주로 증가하고 있고 고용이 감소했던 업종에서는 여전히 고용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도소매업은 2021년 8월부터 점차 취업자 감소폭이 둔화되면서 2022년 상반기 3.8만 명의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도소매업 고용의 회복을 주도한 것은 업종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직종이 아닌 사무직(경영·회계), 기계장치(운전·운송) 등 비판매직종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의 소비가 자리 잡으면서 판매직종보다는 비판매직종의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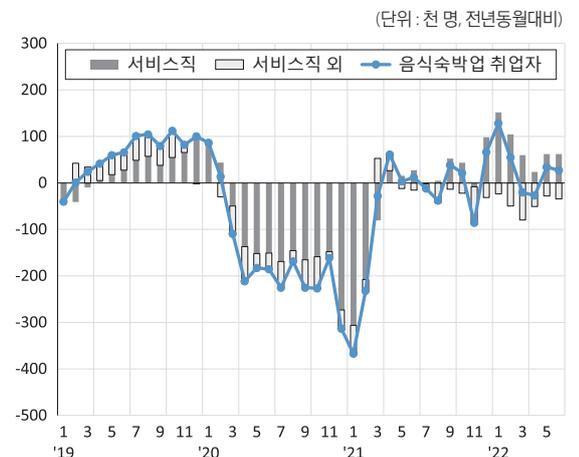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3.3만 명 증가하여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평균적으로 매월 22만 명씩 감소한 이후로 1년 4개월이 지

[그림 7] 판매직 여부별 도소매업 취업자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8] 서비스직 여부별 음식점업 취업자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난 현재 고용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요리, 여가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직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증가한 반면,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판매직(매장판매), 단순노무(재료손질) 등 비서비스 직종은 2020년 이후로 코로나19 확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운수창고업은 2021년에 이어 2022년 상반기에도 높은 취업자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소비가 익숙해지면서 취업자가 매월 10만 명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불안정한 고용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에는 택시, 버스, 화물운전 등의 기계장치 직종보다 택배 및 음식배달 등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단순노무 직종 취업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전보다 운수창고업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 7. 전문직 비대면서비스 취업자 대폭 증가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비대면서비스업에서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활발하게 고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상반기 비대면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23.5만 명 증가하였다. 과학 및 정보통신, 공학 등의 전문가 및 관련직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전문직 취업자는 비대면서비스 내에서도 2022년 상반기 기준 약 15만 명이 증가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022년 상반기 취업자가 각각 9.5만 명, 7.5만 명 증가하였다. 정보통신업은 2022년 1분기에는 주로 20~30대의 여성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2분기는 30~40대의 남성 취업자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매월 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남성 비중이 높은 업종이지만 최근에 여성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보험업은 2022년 1분기 취업자가 1.5만 명 감소하고 2분기는 취업자 감소가 5만 명 발생하면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대부분 사무종사자에 해당

[그림 9] 전문직 여부별 비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주: 표준산업분류(10차)에서 정보통신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하고 있는데 최근 은행 영업점포 폐쇄가 발생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청소, 경비 관련 중고령층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지원서비스에서도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부동산업은 매월 3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추가적인 고용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서비스 분야(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복지) 취업자는 2022년 상반기 37.6만 명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2021년까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15~39세 연령대 고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점차 취업자 증가로 전환하여 2022년 상반기에는 약 15만 명의 15~39세 취업자 증가폭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 및 교사로 새롭게 임용되거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도 의료시설, 돌봄 관련 전문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발생한 영향이다.

### III. 2022년 하반기 고용 전망

2022년 하반기, 그리고 연간 고용 전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경제는 전망기관별로 2022년 2.7~2.8%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

도소매업은 판매직보다 비판매직 위주로 취업자 증가, 숙박음식점업은 비서비스직보다 서비스직 위주로 취업자 증가

금융보험업, 사업지원(청소, 경비) 분야에서 고용 감소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은 고령층 중심에서 최근 청장년층 중심으로 증가

여성,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문직 취업자 증가

다. 이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내수 둔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이전의 성장률 전망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수치이다. 다만, 해당 대내외 여건 변화와 불확실성은 상반기에도 존재했으나 고용회복세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상황과 고용시장 간의 연계성이 약화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내수 악화의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용사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대면서비스업 고용의 반등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비대면 고용의 증가세 지속, 재정 지원의 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양호한 수준의 고용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전망요소를 반영하여 추산한 본원의 2022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은 다음과 같다.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심화, 글로벌 경제 및 내수시장 위축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22년 하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546천 명 수준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올해 상반기 발생한 취업자

증가분 941천 명을 반영한 2022년 연간 취업자 수는 743천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최근의 코로나19 신종변이 확진자 수 증가와 거시경제적 하방위험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작금의 고용회복세가 둔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및 고용서비스 확충을 포함한 고용·노동정책의 실효적이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신종변이의 확산세 진정, 글로벌 경제의 안정세와 내수 개선이 이루어지고, 고용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어 고용회복 추세가 2023년에도 지속될 기대해 본다.

〈표 2〉 2022년 고용 전망

(단위: %, 천 명)

	2021			2022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취업자	26,918	27,628	27,273	27,858	28,714	28,016
(증가율)	0.4	2.3	1.4	3.5	2.0	2.7
(증감수)	119	618	369	941	<b>546</b>	<b>743</b>
실업률	4.5	2.9	3.7	3.2	3.3	3.3
고용률	59.8	61.2	60.5	61.6	62.1	61.9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하반기 약 40만 명,

연간 약 67만 명 취업자 증가 전망